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마가복음 1:14-15

2021년 3월 7일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 소년이, 갠지스 강변에 앉아 있는 수도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배우고 싶으냐? 네, 가르쳐 주세요. 수도사는 그 소년의 목을 잡고, 얼굴을 강물에 집어 넣었습니다. 소년이 숨을 차서, 발버둥을 칠 때까지 얼굴을 강물에서 못나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을 들어, 강물에서 그 소년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놀라면서 물으니, 수도사의 답변이, “네가, 이렇게 숨이 모자라서 숨을 쉬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기도하는 생활의 첫걸음이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는 이 수도사 처럼, 물에다가 우리들의 머리를 넣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시면서,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뜻을 모르고 드린다면,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됩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기도문이라고 믿습니다.

설교가 레놀드 스위트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밝혀 주었습니다.

첫째, 주기도문에는 내세에 관한 기도가 아니다.

둘째, 우리가 죽으면 천당에 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없다.

셋째, 부자가 되게 해 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넷째, 믿음에 관한 기도가 아니다. 믿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아니다.

다섯째, 예수님에 관한 기도가 아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게 해 달라는 기도도 아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절실한 기도입니다. 절실하게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지난 주에, 첫번째로 가르쳐 주신 기도: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심을 재 확인하며,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외하고 존경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재 다짐했습니다.

오늘 두번째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워 나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 장 15 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첫번째 선포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 장 6 장 7 장, 산상 수훈과 다른 비유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100 번을 넘게, 4 복음을 비롯하여 신약성경에, 언급하였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한 마디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곧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 곧 천국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 하늘 나라 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한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곧 천국은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같이, 영토를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The Kingdom of God 은 바로 Reign of God 입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실현되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활발하게 세워지는 영적인 세계를 가르키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사랑과 진리와 평화가 충만하고, 충만하여 넘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펼치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전개하신 이 천국 사역이 이 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그리고 평화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음을 아오니, 당신의 자비와 권능과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진리 평화가 충만한 나라, 곧 천국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1

오늘 가르치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주기도문 전체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와 평화가 충만한 나라 곧 천국이 이 땅에, 이 땅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의 누구에게나, 나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가족 뿐 만 아니라, 내 친구 뿐 만 아니라, 모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 전쟁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피난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원수지간인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손가락 기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두번째 손가락은, 나의 가족 친구외의 모든 사람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미, 오스트렐리아 등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기도 가운데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각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이 세상 만물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만물, 곤 동물 식물, 모든 자연물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피조물입니다. 산행하거나 아침 산보할 때에, 만나는 만물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 만을 위한 기도의 틀을 깨뜨려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나라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생명 가운데, 만물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1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 의 그리고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데, 우리가 동참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 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기쁜 소식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초대하고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21 세기, 지금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실현시키고,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해 가는 이 숭고한 일에 동참하고 기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한 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 건설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1

누가복음에 보며는, 바리새인들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냐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 장 20 절-21 절 다른 성경 번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번역하여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에, 하늘 구름 사이에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지상의 한 곳을 가르켰습니다. 손가락이 가르키는 곳을 보니까, 십자가 종탑이 있는 작은 교회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길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그래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일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1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작은 손짓 발짓, 작은 말과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자라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고 펼치는 데, 기회를 만들고, 몸소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친절과 진심에서 나오는 사랑과 격려의 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들의 감사와 웃음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고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에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삶 가운데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로 섬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집니다.

불의에 항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구현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펼쳐집니다.

배고프고 가난한 이웃,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펼쳐집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임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령이 가난하여 겸손하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사는 삶 가운데 세워집니다
이민자 보호 교회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두려움에 쌓여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와 후원하는 사역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 집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다양하게 창조되어진 우리 모두입니다. 인종 차별 하지않고, 모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그 곳에 사랑과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작은 몸짓, 작은 실천이 작은 거자씨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우리 가운데에서 자라나고, 결국 많은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자라납니다.

코비드 19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고 얼마나 감사하였는 지 모릅니다. 백신 주사 맞아야 하는 데, 약속을 예약하는 데 불편한 교우들에게 연락하여서, 약속 잡아주고 차편 제공하는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집니다.

1

아침 마다, 매일,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전쟁이 끊임없고, 가난이 있고, 폭력과 압제가 있습니다. 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의 모든 악들이 사라지고, 싸움이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차별이 있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혐오하고, 이 세상이 어지럽습니니다. 어둡습니니다.

이 어둠은, 우리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도 어둠이 있습니다. 질투와 무시 그리고 경쟁과 혐오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과 진리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얼마나 숭고한 소명입니까? 이 얼마나 고귀한 소명입니까? 그래요, 우리가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혼자 펼쳐가고 세워가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사역에 참여합니다.

아무쪼록,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동네에서, 어디에서 이든지, 하나님의 나라 건설 사역에 깨어,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